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 여성과 소비 | 교단일기 | 스토리텔링 파워

여름 방학 무엇을 할 것인가

이근택

방학(放學)이다. 방학은 학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 또는 그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放(놓을 방)은 '놓다, 놓이다, 석방되다'의 뜻이고 學(배울 학, 가르칠 교, 고지새 할)은 '배우다, 가르치다'의 뜻이니 수업을 쉬는 일이 맞긴 한데, 고지새라는 새가 문제다. 부리가 노란 고지새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키-코, 키-고고" 하고 지저귀는 여름 철새란다. 요놈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생각하며 뭘 하며 쉴까? 혼자 키득거렸다.

언젠가 여름 방학에 지리산 노고단 산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었다. 함께 간 여러 가족이 모두 하늘을 보며 밤을 지새웠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별이 또 있을까. 하늘은 온통 별들의 천지, 수정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별, 별, 하얗고 푸른 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가슴마다 그 별들을 주워 담으며, 풀벌레처럼 붉어진 마음으로 오랫동안 노래하고 이야기하였다.

그때 누군가 말하였다. 하느님은 지금 별들을 담았던 뒤주를 청소하고 계신가 보다. 우리는 뒤주를 뒤집어 탕탕 두드리는 하느님을 상상하였다. 그 통에 세상 구경을 못 해 본 별들이 새까맣게 쏟아져 멧돼지가 되거나 갈참나무나 날다람쥐가 되었다. 어떤 것은 바위채송화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것들은 다음날 정령치로 가는 만복대 꼭대기에서 바위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지난 학기는 유난히 힘들었다. 올해부터 우리 학교가 자율형공립학교가 된 관계로, 2학년 담임들도 오랫동안 야간 자율학습 지도를 하였다. 밤 10시까지, 3주 동안 근무한 여파는 1학기 내내 선생님들을 지치게 하였다. 교원 평가, 학교 평가도 무거운 짐이었다. 이제 힘을 보충할 방학이 되었다. 교사들에게 방학은 여름날 느티나무 그늘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본 수업과 방과 후 학교 수업을 거쳐 자율 학습까지 열심히 하여야 했다. 지필 평가, 수행 평가, 서술형 평가, 영어 듣기 시험, 영어 단어 시험 등등 많은 시험도 봤다. 제출해야 할 과제물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수시로 제공되는 시험 점수와 성적 순위에 쫓기며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다. 그 때문인지 여름이 되면서부터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아이들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 물었다. 방학이 다가오는구나, 뭐 할래? 순식간에 눈빛이 살아난 아이들은 외쳤다. 바다로 가요, 해운대, 비키니, 동해 바다, 설악산……. 여기저기 터지는 목소리에서 파도 소리가 들린다. 푸른 산딸나무, 졸졸거리는 냇물도 보인다. 그 순간, 학원 수강이나 특별 과외나 인터넷 강의 같은 것은 애가 탄 부모들의 몫이다.

이번 방학엔 우리 반 부모님들께 가족 여행을 권하고 싶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함께 부대끼자. 아이들은 커 간다. 금방 커서 제 길을 찾아 떠난다. 더 크기 전에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더 많이 배워야하지 않을까. 대화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커서도 대화하지 않는다. 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커서도 제 생각으로만 산다. 가족을 위할 줄 모르면 남을 도울 줄도 모른다.

멀리 나가기를 싫어한다면 무등산에라도 함께 가자. 꼬막재에서 규봉암으로 가는 억새밭과 숲길을 걸으며, 씻어 가지고 간 오이를 풋풋한 풀냄새와 함께 나누어 먹자. 장불재에서 산장으로 내려오는 길에서는 앞사람이 남겨둔 산딸기를 따 먹으며 왜 남을 위해 산딸기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이야기하자.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형도의 시집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과 신영복의 '강의'를 권한다. 덤으로 만화 중국 신화와 장하준의 몇몇 베스트셀러를 사다 주면 아주 좋아할 것이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독서 또한 양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대로 둬도 좋겠다. 우물가를 가로질러 가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달팽이처럼 그냥 쉬게 하자. 느리게 살도록 잠시 놔두는 거다.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이번 방학이 즐거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며칠 동안 즐겁게 보내야 또다시 여름 방학 방과 후 학교 수업부터 시작되는 2학기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2학기에는 더 밝게, 더 긍정적으로 살며,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면…….

〈광주일고 교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백중(百中)을 기다리며

현지

다가오는 음력 7월 15일 백중은 사람들의 생활습관이 바뀌면서 잊혀져 가는 우리의 명절 중에 하나다. 그날을 백중, 백종 또는 중원이라 하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일이라 여겨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일 년 365일 중 상원(정월보름), 중원(7월 백중), 하원(10, 15일 과거급제축일)으로 나누어 중원을 가장 으뜸의 날이라 했다.

또한 삼원(三元-1월15일, 7월15일, 10월15일)에는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들에게 인간들의 죄과를 조사해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잠들지 않고 생생하게 깨어있으면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염라대왕도 죄인을 잡아들일 수 없어 수명을 늘릴 수 있었다. 삼천갑자 동방삭이처럼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꾀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비밀스러운 말이라 그날 잠을 자면 눈썹에 하얗게 써까리(서캐-이의 알)가 낀다고 가르쳤다.

백중은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목련존자가 6신통을 얻어 천안으로 천상과 지옥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다른 목련은 천상인간지옥계에서 어머니를 찾아보았다. 어머니는 아귀도에 떨어져 고통과 흉측함이 말할 수가 없었다. 목이 메인 목련존자는 먹을 음식을 어머니에게 드렸으나 먹으려는 순간 입에서 불길이 솟아 태워버렸다. 어찌할 수 없는 목련은 세존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였다. 목련아 네가 비록 도력과 신통력이 있다고 하지만 삼보를 대방한 죄는 너의 신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에게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겠다. 우란분회 때에 출가 대중에게 지성으로 공양하라 그 공덕으로 어머니의 죄가 가벼워져 아귀도를 면할 것이다.

백중은 백종 또는 우란분회(거꾸로 매달리다)하며 목련의 효심에서 연유된 것이다.

또한 백종은 그해 농사지은 과일과 음식 100여 종을 부모님과 조상님에게 공양 올려 효를 다한다는 뜻이며 스님들은 이날 대중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여 참회를 구하고 절에서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돌아가신 칠대조상들을 위해 음식으로 재를 올리는데 근원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처럼 가까운 사람은 없다.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아니면 잘 자랄 수가 없다. 효성스러운 자식이라면 부모님을 위해 복을 짓고 법경을 베풀어야 한량없는 공덕이 되어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부모은중경' 중)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범천(천사)이 있게 하고 싶거든 부모에게 효도하라 범천이 곧 그 집에 머물 것이다. 제석천(하느님)이 자기 집에 있게 하고 싶거든 부모에게 효도하라 제석천이 곧 그 집에 머물 것이다. 모든 천신을 자기 집에 있게 하고 싶거든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천신이 그 집에 머물 것이다. 만약 천신과 성현과 여래에게 공양예배하고 싶거든 부모에게 공양예배 올려라 천신과 성현과 여래가 곧 그 집에 머물 것이다.('잡보장경' 중)

세존께서는 항상 부모와 노인에게 공경하고 공양 올려 효를 다하라 말씀하셨다.

효는 인간의 참된 덕목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선하고 착하여 법이 없어도 세상을 정화시키고 효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모든 일이 제멋대로고 위와 아래 부모와 남을 가리지 못해 언행이 불손하고 방자하여 세상을 혼탁하게 한다. 백중 우란분절은 일반인들에게 잊혀지고 있지만 어른을 존경하는 것을 일깨우고 조상과 부모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과 효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아름다운 명절'이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우체국보험

김성진

독일의 보험학자인 마네스(A.Manes)는 '1인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1인을 위해서'라는 말로 보험을 정의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을 내서 공동의 재산을 준비하고 한 사람에게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준비된 공동재산으로 그 사람의 남아 있는 가족을 도와줌으로써 경제적인 부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계, 향약, 두레, 품앗이로 대표되는 우리 조상의 나눔 문화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이 없는 남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보험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하여 없는 자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건강은 피폐해져 어려운 현실 앞에 좌절한다.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적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 상호부조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유지, 보험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보험에서조차 배제되어 방치된 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소득원이 없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이 늘고 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은 우리나라의 고령자 부양 비율은 2009년에 14.7%이지만 2050년에는 62.9%에 이르러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13.3%)을 훨씬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생의 90%는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돈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 문제의 90%가 해결된다고 한다. 그런데 집안의 가장이 여러 가지 상해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우선 생계유지가 어렵다 보니 당장 닥치지도 않은 위험에 미리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들에게 보험료가 저렴하니 보험에 가입하라는 요구는 사치에 지나지 않으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상부상조나 환난상휼이라는 보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우체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위해 공익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우체국에서 공익재원으로 남자는 2만5480원, 여자는 1만5680원을 지원하고, 고객은 연 1만원으로 각종 상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자기부담료(4인 가족 기준)가 직장 가입자는 월 6만4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6만8400원 이하인 세대주(15세~65세)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광주, 전남 우체국에서는 만원의 행복보험을 올해 1만1000세대 가입시점까지 판매한다.

이와 더불어 우체국 보험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집배원들과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11명의 불우이웃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매월 1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사랑 나눔 활동을 하고 있고 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11명과 한 부모 가정 12명, 장애인 28명에게 우체국보험인 '꿈나무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줘 성인이 될 때까지 미래의 각종 위험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더 많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우체국 보험 가입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각종 상해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전남지방우정청장〉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점검, 빗길 사고 예방해야

운전중에 타이어가 파손돼 자동차가 멈춰서 있는 걸 자주 본다. 특히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빗길 수막 현상이 더 커져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으면 도로와 닿는 면적이 넓어져 많은 열이 발생하고 결국 타이어 파손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주행중 타이어는 노면에 닿는 순간 일정 부피만큼 들어갔다가 노면에서 떨어지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이런 반복 운동이 고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스탠딩 웨이브라고 한다. 이때 노면에 의해 들어갔던 부분이 원상태로 회복됐다가 다시 노면에 붙기까지 타이어 스스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기압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정상적인 반복과정을 방해하면서 타이어의 피로 강도를 높여 파손을 초래한다고 한다.

주행중 타이어 파손 사고가 다행히 국도에서 일어나거나, 저속주행중에 발생하게되면 다행이겠지만 시속 100~120㎞로 고속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형 인명 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정 기준보다 10% 정도 높게 만들어 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다고 한다.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배려하는 운전 습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한다.

▲권혁조·광주시 동구 내남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2배 오른 F1 땅값, 그대로 수용은 안 된다

영암 F1(포뮬러원)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경주장 부지 양도·양수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주장 부지 산정가격이 턱없이 비싸게 책정된데다 전남도가 떠안아야 하는 만큼 재정부담 가중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경주장 부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인근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사업) 부지도 그만큼 상승할 것으로 우려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J프로젝트 내 F1 경주장 부지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 측 감정기관의 평가 결과 3.3㎡당 5만1240원으로 결정됐으며, 전체 부지를 사들이기 위한 가격만 287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근에 있는 구성지구의 평가액(3.3㎡당 2만1157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싸며, 새만금 간척지의 감정가(3.3㎡당 3만3554원)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경주장 부지 가격이 이 정도라면 J프로젝트 부지매입비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 사업이 축소되거나 좌초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도는 감정평가액이 결정됐다고는 하나 이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F1이 국가적 사업인데도 농어촌공사가 개발이익까지 포함시켜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한데다 재정이 극히 열악한 전남도에 부담을 떠넘긴 것은 분명 억지다. 당초 감정평가 항목에서 개발이익을 제외시켰어야 옳다.

부실한 감정평가는 제쳐 놓더라도 전남도가 경주장 준공 절차만 서두르면서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격 조정을 위한 재협상은 필수다. 만일 조정이 안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감면 조치를 하든지 그에 상응한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

전남도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F1에 대한 관심 표명을 부지 문제와 경주장 건설비, 대회 운영비 등 현안 전반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시 치솟는 기름값, 팔짱만 끼고 있는 정부

정유사들의 'ℓ당 100원 할인'이 끝나자마자 기름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3일 ℓ당 각각 1904.95원, 1907.61원을 기록하는 등 기름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 6일 정유사의 기름값 'ℓ당 100원'이 끝난 뒤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내 정유사들이 유가 인하분의 단계적 환원을 밝히고 있어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ℓ당 2000원'을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연말에는 'ℓ당 3000원'까지 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기름값의 고공행진은 가뜩이나 물가 상승의 파고 속에 짓눌려 있는 서민 가계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더욱이 기름 소비가 많은 트럭 운전자, 어민, 하우스 재배 농민 등 영세 자영업자는 당장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유류 공급의 고의적인 축소나 사재기 등을 엄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름값을 잡지 못하면 정부의 올해 물가 상승률 4.0% 목표는 물 건너간다. 기름값과 함께 체감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고, 최근 긴 장마로 농산물값마저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셈이다.

정부는 정유사들의 기름값 할인 종료를 연착륙시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유류세 인하 등 기름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정유사 팔 비틀기'와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기름값을 잡을 수 없다. 기름값이 안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無等鼓

연금복권

'필요한 건 단 1달러 그리고 꿈'. 미국에서 복권을 처음 발행했을 때 걸었던 캐치 프레이즈다.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을 낚는데는 이만한 말이 없다.

복권을 카지노와 경마 등 도박성 오락과 구분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 잃을 게 한정돼 있다는 논리다. 단돈 1000원을 들여 일확천금의 행운을 거머질 수 있다는 유혹은 거부하기 힘들다. 더구나 복권 판매 수익금이 공공사업에 쓰인다니 구입자들에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만족감도 줄만하다.

기원전 100년께 고대 로마시대부터 등장한 복권은 이런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다.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복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발행했고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는 흉노족(훈족)의 빙고게임 일종인 '케노(Keno)'로 조성한 기금을 만리장성 건설에 사용했다.

17세기 초 영국은 북미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복권을 찍어내는 등 복권은 자본주의 전개 과정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왔다. 교육과 보건,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의 공공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요구되는 재원조달용으로 복권이 애용됐다.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복권을 팔아 서민들의 코묻은 돈을 주머니에서 빼냈다는 얘기다. 세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고 구입자들의 저항감도 없는 탓이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복권의 역사' 저자인 데이비드 니버트는 "복권의 역사는 가난한 이들의 꿈에 세금을 매긴 수탈의 역사다. 큰 돈을 번다는 공허함 꿈을 심어줘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의 불행과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사회통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정의했다.

연금복권 열풍이 로또를 넘어서고 있다. 연금처럼 20년간 매달 500만 원씩 받는다는 논리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을 자극한 것이 성공 비결이다. 부자감세 정책을 유지해 온 정부가 급기야 서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대신 이들의 불안한 노후를 담보로 세금을 걷는다니 씁쓸하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